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마태복음 15:21-28

오늘 말씀의 여인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의 영적 권세를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영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즉 귀신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비록 과학이 발달한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는 여전히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한 것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하나님 사이에 이간질 시킨 것이 바로 마귀였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 사이에 낳은 첫째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들에 데리고 가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형제간에 살인을 저지르게 만드는 끔찍한 죄인으로 만든 것일까요? 형의 마음속에 불붙는 질투심과 시기심을 불어 넣은 마귀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2절에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정욕과 시기와 질투, 욕심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죄의 굴레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딸에게 이러한 귀신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작용하는 과정을 3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집착’(Obsession)의 단계입니다.

사람에게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귀신이 자신에게 붙어 있기에 자기 곁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 흠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행 8:4, 7)

예수님이 오시자,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 있던 귀신들이 견디지 못하고 고향을 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귀신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붙어 있어 귀신인줄도 모르고 오히려 친구처럼 되어 버린 귀신도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 단계는 ‘압박’(Oppression)의 단계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하게 되고,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번째 단계는, ‘슬픔’(Depression)의 단계입니다.

끝없는 우울함과 슬픔으로 몰아 넣습니다. 작은 것에도 크게 실망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깊은 우울감에 빠져 들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 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귀신을 제어할 수 없고,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며,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뭐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8 장에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에게 부르짖었을때, 재판장이 과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도 자신의 죽음 앞에서 끝까지 부르짖으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딸의 귀신 들림을 고쳐 달라고 간청했지만, 무참히 거절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십자가의 못박히기 전의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주로써 오신 것이지만 온 세상의 이방 백성들의 구주로 오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을 통해 그 때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 백성을 포함해 온 열방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난 시점의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위해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뛰어 나와,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도움을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혹하리만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 않는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말을 듣고 기분이 매우 불쾌하여 돌아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반응은 매우 놀랍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옹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마 15:27)

그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마 15:28)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크게 감동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는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냉정한 모습을 보여도 그 마음 중심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간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상황이 녹록치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가시밭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애원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도리어 절망의 골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지 조차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떠올려야 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귀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간구하는 기도마다 거절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고통이 다가와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같이 라”(롬 8:35)

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논리정연하게 예수님께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논리정연하게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러이러한 약속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목적없이, 또 나 스스로도 설득되지 않은 기도의 내용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닌, ‘말씀’ 이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로 기도함으로 인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오랫동안, 또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그 때의 기분은 어떠했는지, 또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참고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2. 위의 밑줄 그은 부분을 함께 읽어보고, 나에게 이 문구들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또 자녀가 간절히 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부모의 심정에서 이 내용을 (나의 경험에 비추어) 이야기해 봅시다.